

음악학 연구자원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자 정보요구 분석을 기반으로 -

A Study on Facilitating the Use of Research Sources in Musicology: Based on the Analysis of Researchers' Information Needs

홍 인 경 (InGyeong Hong)**

김 지 현 (Jihyun Kim)***

초 록

본 연구는 음악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요구와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음악학 분야 연구자원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내 음악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음악학 연구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현황, 음악학 연구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및 연구자원 이용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음악학 분야 연구자원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자원의 수집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둘째,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음악 주제전문사서의 양성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사서와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음악학 연구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과 문화예술기관에서의 효율적인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개발에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a plan to facilitate the use of research sources in Musicology based on examining information needs of researchers in the field and the status of using the sourc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domestic researchers in Musicology,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earchers' information needs, the status of utilizing the sources, perceived values of the sources and opinions about problems and solutions related to using the sources. Predicated on the analysis, the study noted the plan to facilitate the use of research sources in Musicology in three aspects. First, it is necessary to collect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ze the research sources. Second, education and promotion of the sources to users should be provided. Third, training music librarians and collaborating among the librarians and associated institutions are needed. The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to effectively provide information and services developed by research institutions relating to Musicology and institutions of art and culture that effectively provide information.

키워드: 음악학 이용자, 음악학 연구자원, 연구자 정보요구, 전문도서관, 음악전문사서

Users in Musicology, Research Sources in Musicology, Researchers' Information Needs,
Specialized Library, Music Librarian

*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9. 2)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 석사, 가람도서관 사서(ighong82@gmail.com)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im.jh@ewha.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9년 8월 20일 논문심사일자 : 2019년 9월 26일 게재확정일자 : 2019년 9월 27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3): 245-266, 2019.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9.30.3.245>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사회과학, 과학기술 분야, 인문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용자와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다양한 학문 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음악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음악학 분야의 이용자 연구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져 왔다.

음악학(musicology)은 물리적, 심리학적, 미학적,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음악 예술에 대한 연구를 그 목적으로 하는 지식의 한 분야이다(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001). 음악학 분야의 이용자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므로 이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원의 범위와 깊이가 매우 넓고 양질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그러나 현재까지 음악과 관련된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는 음악 자료의 분류, 악보 관리 등 장서개발 및 관리, 음악전문도서관과 주제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국내에서 음악 분야에 속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클래식 음악을 이용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만이 진행된 실정이다(김보경, 안중현 2014; 안중현 2015).

국내에서는 19세기 말 서양음악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국내 상황에 맞는 독창적인 음악 문화를 이어오고 있지만, 음악 보존 시스템이

나 전문도서관의 열악한 상황과 음악 연구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귀중한 음악 연구자들이 사라지거나 흩어졌다. 이러한 자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수집 및 목록화하고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내의 근현대 서양음악을 연구하고자 하는 음악학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음악 연구를 위한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로, 대학에 음악학 전공이 설치되고 해외 유학에서 돌아온 연구자들에 의해 1차 자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반 음악학 전공자의 수가 늘어나고, 음악학 전문 학술지와 연구서적이 활발하게 간행되기 시작하면서 2차 자료의 축적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음악학의 발전 과정에서 음악 문헌목록 및 기타 기초적인 연구자원이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은 음악학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김춘미 1988; 박미경 2005; 이미배 2005). 나아가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힘입어 국내 음악학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음악 자원을 전문적으로 보존하고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아카이브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채현경 2012; 김은하 2016). 이와 같은 음악 연구자원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활용하는 연구자들의 정보요구를 분석하고 이용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관련 정보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음악학 분야) 중에서도 서양음악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정보요구를 분석하고 이들이 이용하는 연구자원, 정보서비스의 특

성 및 내용과 이용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악학 연구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현황 조사를 통하여 이 분야에서 제기하는 연구자원 수집의 문제에서부터 음악 분야 연구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음악학 연구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과 문화예술기관에서의 효율적인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음악학 분야 연구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국내 음악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음악 및 관련 문화예술 분야의 정보이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타 분야의 이용자 정보요구와 이용에 대하여 기존 이론과 연구방법을 검토하고, 국내 음악학 분야 연구자의 정보요구와 이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 음악학 분야가 어떻게 발전되어왔으며 어떠한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근의 동향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음악학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연구 정보자원의 확보 문제와 디지털 연구자원에 대한 요구를 중점적으로 정

리하였다.

둘째, 국내 음악학 분야 연구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현황 분석을 위해 이용자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음악학 전공이 설치된 국내 11개 대학원 중 전임교수가 2명 이상이고 석·박사과정 운영되는 5개 대학원을 표본추출 대상기관으로 제한하여 이 중 음악학 전공 석·박사생과 교수 및 강사 16명을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는 2018년 10월 4일부터 11월 9일 사이에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인터뷰 질문지를 이용한 개별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지의 내용과 구성은 종족음악학자²⁾들의 정보이용행태에 대한 Liew와 Ngor(2006)의 연구와 공연예술전공 학생들의 정보요구에 대한 Mayer(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취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연구와 심층인터뷰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음악학 연구자원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1.3 선행연구

음악학 분야 연구자의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음악을 포함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 국내의 음악학 연구는 크게 서양음악을 연구하는 서양음악학과 한국의 전통음악을 연구하는 한국 음악학 두 갈래로 나뉜다. 음악학이라는 용어는 현재 한국에서는 서양음악학(Western musicology)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 한국의 전통음악을 연구하는 한국음악학(Korean musicology)과는 구분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혼동을 줄이고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자 서양음악학 분야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음악학'을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범위는 서양음악학을 따르되, 전통음악(국악)을 제외한 국내에 서양음악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음악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 2) 종족음악학자는 비서구 음악의 연구로 폭넓게 이해되는 종족음악학(Ethnomusicology)을 연구하며 문화적 문맥에서의 음악연구를 수행한다.

이용자 중심의 음악정보검색시스템(Music Information Retrieval: MIR) 설계를 위하여 정보탐색행위를 연구한 이운주(2005)는 음악 분야 전문지식 여부와 MIR 시스템 이용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4개 집단에 대한 탐색실험을 통하여 음악정보 행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정보탐색행위 모형'을 제시하였다.

김보경과 안종현(2014)은 클래식 음악이용자에 대한 정보탐색행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보탐색과정 중 전문적인 클래식 음악 정보 제공의 부족과 이용자의 요구에 맞지 않는 카테고리의 분류, 클래식 곡명의 불명확한 정보제공의 문제점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안종현(2015)의 연구는 클래식 연주곡을 감상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는 이용자들의 정보탐색행태를 연구한 것으로, 현재 클래식 음악 정보시스템이나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음악 분야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이용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Kulik(2010)의 연구는 이스라엘의 음악도서관 관련 기관의 이용자 그룹과 사서를 포함한 정보제공 그룹에 대한 조사로, 새로운 기술이 음악정보의 조직화와 음악학 분야의 연구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주목하였다. 음악도서관에서 디지털 악보 컬렉션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인쇄본 컬렉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Lai와 Chan(2010)의 연구는 음악이용자의 요구, 이용 패턴 및 다양한 컬렉션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한 것으로, 학술 목적과 연주 목적의 두 그룹 이용자 간에 이용행태와 자료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주었다. 대학도서관의 음악 장서가 이용자 요구와 현대음악 및 협주곡 작품을 포함하여 부족한 악보에 대한 우선순위 요구에 따라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Dougan(2012)은 음악 전공생이 음악연구를 목적으로 음악 자료, 특히 악보와 음향자료를 식별하고 접근하는 도구와 이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다양한 전공의 음대 학생들을 위한 컬렉션과 자료, 이용자 그룹에 따른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의 정보탐색행태를 파악하여 이를 적용한 연구자원을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Mayer(2015)는 공연예술 전공생들의 정보 요구 및 탐색행태를 조사하고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교육, 학습 및 연구 서비스가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포커스 그룹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멀티미디어, 1차 자료 및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목록 검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정보교육을 제공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음악학 분야 연구자의 정보이용에 관한 국외연구로는 Liew와 Ngro(2006)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뉴질랜드 종족음악학자(Ethnomusicologists)들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것이다. 비서구 음악문화를 연구하는 종족음악학자들은 음원의 음향과 필사본 및 박물관에서 보유한 자료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 분야의 다양한 요구와 광범위한 자원의 필요성이 높는데 비해 도서관이 이러한 요구의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국내 음악학 분야에서도 연구를 위한 정보 요구,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른 정보 접근성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박미경(2005)은 음악박물관과 아카이빙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여 음악 자료 보존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켰고, 이미배(2005)는 RILM(Répertoire International de Littérature Musicale, 국제음악문헌목록)이 조직한 첫 학술대회에 참관한 뒤, 음악 문헌 정보들을 축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음악연구까지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는 RILM의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한국의 음악 문헌정보가 RILM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기 위해서 국제기구와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가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강만희(2010)의 연구는 음악 분야 연구자들이 음악연구와 연주를 위해 전통적인 정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화된 정보의 검색과 이용 등 새로운 방법에 적응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또한 채현경(2012)은 동아시아의 근대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대음악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1차 자료의 수집과 근대음악에 대한 기록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은하(2016)는 음악 유산 보존과 관련 연구 및 공연의 확산을 위해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이미배(2017)는 국내 음악 보존 시스템이나 음악전문 도서관의 열악한 상황, 음악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한국의 음악 자원을 보존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 음악학 분야의 연구자원 수집과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고 있으나 연구자원 이용에 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술 목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음악학 연구자들의 정보요구 및 이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음악학 분야와 연구자원의 특성

2.1 음악학 분야와 최근 연구동향

본 연구에서는 음악학 분야에 대해 정리하고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 전반적인 학문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음악학 분야는 객관적, 과학적 성격의 학문으로 출발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을 받아들여 역사음악학과 체계음악학으로 이분법화된 연구 분야에서 점점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가고 있다. 최근의 연구동향은 인류학과 인문학 등의 방법론을 도입하고 서양예술음악 중심에서 비서구 음악과 대중음악 등 모든 음악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학제간 통합의 경향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음악정보검색, 음악 빅데이터분석 등의 영역으로 확장해가는 디지털 음악학으로 연구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김은하 2017).

국내에는 1970년대 말 음악학이 도입된 이후 연구자들의 저술 및 번역 활동과 더불어 학술지를 통한 출판으로 음악학이 발전해 갔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음악학 연구는 각 시대의 음악에 대한 논의와 음악이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음악작품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

루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음악학 연구는 국외의 동향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젠더(gender) 연구, 대중음악과 세계음악 등 연구주제의 확대와 공연연구, 학제간 연구 등의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과 더불어 국내 근현대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베이스와 아카이브 구축연구 및 디지털 음악학 연구로 그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최근 연구 동향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범위가 확대되고 글로벌화 되었다. 영화음악, 재즈 등의 개별 장르 연구부터 미디어 현상 등 대중음악 연구가 많이 등장하였고, 음악에서의 여성연구도 증가하였다. 국내를 벗어나 동아시아와 세계화, 학제간 연구에 대한 주제도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김성혜 2009).

둘째, 인문학에서의 근현대 연구 증가의 영향으로 음악학에서도 근현대 음악에 대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차 자료의 발굴과 정리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서양음악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의 시기부터 해방 전후까지 활동한 음악가들과 음악문화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이 증가하였다(주성혜 2004; 채현경 2012; 김은하, 이경자 2014).

셋째, 1차 자료의 발굴을 비롯하여 역사적인 자료를 체계화하려는 작업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아카이브 연구로 이어졌다. 최근 대학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음악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고, 음악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은하 2016).

넷째, 디지털 시대의 맥락에서 새로운 기술을 음악학 연구에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그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인문학이 디지털 기술을 수용한 것과 같이, 음악학 분야에서도 변화하는 학문으로의 진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은하 2017).

2.2 음악학 연구자원의 특성

연구를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하는 것은 연구의 방법 및 연구 기간 등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더불어 어떤 유형의 음악 연구자원이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음악학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송무경 2016). 음악 연구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참고 서비스가 다른 분야와 다른 주요 원인은 자원에 내재된 속성과 연구자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Scott 2016). 음악이라는 특수한 대상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원전(Original source)과 필사본을 비롯한 1차 자료부터 단행본, 논문, 음원 및 동영상까지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연구자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자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음악학 연구자들의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학 분야 및 연구 동향 분석과 더불어 음악학 연구의 근간이 되는 자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음악학 분야에서 이용하는 연구자원의 특성은 첫째, 음악 자원의 고유한 특성과 다양한 유

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음악자원의 특수성은 악보와 음향 자료의 특수한 형태와 고유한 성격으로부터 인한 것이다(Gardinier, Canino, and Rahkonen 2018). 소리 예술인 음악은 악보를 통해 표현되고, 소리 자체가 담긴 매체로도 존재한다. 음악학 연구자들은 악보가 갖는 복잡한 상징체계를 비롯하여 이론과 음악 자체(소리)를 참고하기 위해 녹음자료나 연주 동영상 등을 활용한다.

둘째, 1, 2차 자료 모두가 연구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음악자원은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원전이라 불리는 1차 자료는 작곡가의 악보, 음악학자 또는 이론가의 저술, 연주자의 음원을 포함한다. 2차 자료는 1차 자료를 토대로 연구한 것으로, 단행본과 논문 등을 포함하며, 3차 자료는 2차 자료를 기초로 연구한 단행본이나 논문, 데이터베이스 목록 등을 포함한다(송무경 2016).

셋째, 최근 디지털화의 흐름 가운데 연구자원의 디지털화로 자료의 활용과 접근이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유럽 및 미국의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등에서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무료로 혹은 전문적인 관리 회사를 통하여 유료로 공개하고 있다. 악보, 정기간행물, 단행본 등을 손쉽게 화면에서 이용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음향 및 동영상 자료 등 멀티미디어 자료도 인터넷을 사용한 검색과 수집이 가능해져 음악 자료에 대한 접근방법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연구자원은 전통적인 연구방법보다 훨씬 다양한 자료를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통로로써 음악학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3. 음악학 연구자의 정보요구 및 이용조사

3.1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음악학 분야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연구자원과 정보서비스의 파악 및 이용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연구자원의 이용 활성화 방안의 모색을 위해서 음악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심층인터뷰 대상으로 음악학 전공이 설치된 국내 5개 대학원의 교수와 강사, 대학원생 16명을 선정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선정을 위해 국내 음악학 전공이 설치된 11개 대학원 중 전임교수가 2명 이상이고 석·박사 과정이 모두 운영되는 5개 대학원을 표본 추출 대상 기관으로 제한하였다. 5개 대학원 중 1개 대학원은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석사학위 학력에 상당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예술전문교육기관으로, 음악학 전임교수의 수가 나머지 대학원보다 많은 3명으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보아 선정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선정을 위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형적 사례인 음악학 전공 전임교수로 재직 중인 5개 대학원의 전임교수 한 명씩을 우선 선정하였고, 나머지는 선행한 인터뷰 참여자의 추천을 받아 확보하였다. 음악학 연구자의 전형적인 사례는 학부에서 음악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와 박사과정에서 음악학 또는 음악학의 하위 분야인 음악사를 전공한 경우를 말한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참여자 중 전임 교수와 강사를 음악학 전공 강의를 맡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하였다. 또한 석·박사생의 경우 전공 이수 학기가 3학기 이상인 사례로 한

정하였는데 이들이 3학기 이상의 수련을 통해 학위논문을 시작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의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인터뷰 참여자의 기초 정보는 <표 1>과 같다.

음악학 분야 연구자의 정보요구와 연구자원 이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적 연구의 방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지의 내용과 구성은 종족음악학자들의 정보이용행태에 대한 Liew와 Ngor(2006)의

연구와 공연예술전공 학생들의 정보요구에 대한 Mayer(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음악학 연구에 있어 연구자의 정보요구와 정보이용현황, 음악학 연구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및 연구자원 이용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구성과 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개별 심층인터뷰는 2018년 10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인터뷰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되었다. 인터뷰의 내용은 참

<표 1> 인터뷰 참여자 기초 정보

구분	성별	직업	학력	경력
A1	여	교수	박사	26년
A2	여	교수	박사	13년
A3	여	교수	박사	17년
A4	남	교수	석사	22년
A5	남	교수	박사	15년
B1	여	강사	박사	4년
B2	여	강사	박사	3년
B3	여	강사	박사	9년
C1	여	연구원	박사과정	박사수료
C2	여	강사	박사과정	박사수료
C3	남	연구원	박사과정	박사수료
C4	여	대학원생	박사과정	4학기
C5	여	대학원생	석사과정	석사수료
C6	여	대학원생	석사과정	석사수료
C7	여	대학원생	석사과정	4학기
C8	여	대학원생	석사과정	4학기

<표 2> 심층인터뷰 질문지 구성과 내용

부문	세부사항
정보요구	연구 분야와 주제, 연구 문제, 연구방법, 정보 접근과정, 연구자원 이용의 목적
정보이용	이용하는 자원의 유형, 주로 이용하는 연구자원, 연구자원의 이용 빈도, 전자자원 이용 비율, 연구자원 선택기준, 정보검색 방법
정보이용의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연구자원 이용의 문제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 경험, 문제 개선을 위한 요소 의견
연구자원의 가치 인식	연구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 연구자원의 가치 강화 및 활용 촉진
인터뷰 참여자 기초정보	성별, 학력, 경력

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인터뷰 데이터의 분석에 있어 질적 유형의 연구자료를 코딩하고 분류하는 과정으로 담화적 자료를 다루는 방법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용분석의 대표적인 방법적 이론화를 시도한 Krippendorff(2004)가 제시한 6단계의 과정에 기반을 두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Krippendorff의 단계적 분석 방법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내용 분석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다(최성호, 정정훈, 정상원 2016).

Krippendorff(2004)의 내용분석 6단계는 단위화(Unitizing), 표본추출(sampling), 기록/코딩(Recording/Coding), 간소화(Reducing), 가추적 추론(Abductively inferring), 서사화(Narrating)이며 각 단계는 순환과정으로 반복과 회귀가 가능하다. 단위화의 단계에서 인터뷰 참여자 각각을 단위로 하여 각 참여자의 응답내용 중 문장의 주요 개념 단어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였다. 표본추출의 단계에서는 각 인터뷰 내용의 분석을 통해 질문의 세부 사항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예시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기록과 코딩 단계는 비구조화되어 있는 인터뷰 자료를 코딩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 중 1인이 코딩 체계를 구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코딩 체계는 18개의 범주와 139개의 코드, 304개의 하위 코드로 구성되었다.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뷰 코딩 분석 결과를 대상으로 음악학 박사과정 재학생 2명의 확인과 검토를 받았다.

간소화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음악학 연구자의 정보 요구, 정보 이용, 연구자원 이용의 문제점과 연구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활용 촉진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인터뷰 내용을 파악하였다. 가추적 추론 단계는 인터뷰를 수행하면서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파악한 진술 맥락을 바탕으로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참여자의 연구분야와 주제, 연구방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참여자의 연구 맥락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정보요구 및 연구자원 이용 현황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서사화 단계에서는 연구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4개 측면으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각 논의에 대해 참여자의 진술을 인용하여 서술하였다.

3.2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음악학 분야 연구자의 정보요구와 정보이용현황, 연구자원 이용의 장벽, 연구자원의 가치 인식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이용현황을 분석하였다.

3.2.1 정보 요구

질적으로 우수하고 정확한 정보의 입수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로, 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자는 적극적인 정보요구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음악학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 분야와 주제를 알아보고 학술적 목적으로 연구자원에 접근할 때, 어떠한 목적과 과정에서 정보요구가 발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1) 연구 분야와 주제

인터뷰에 참여한 16명의 음악학 분야 연구자들은 다양한 음악학의 하위 분야를 연구하였다.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음악사로, 중세시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를 연구하고 있었으며, 전임교수나 강사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악학 연구 분야에 접근하는 이슈 혹은 세부 주제도 음악사와 관련된 답변이 가장 많았다. <표 3>은 인터뷰 참여자들의 연구 분야를 정리한 것이다.

2) 연구 방법

인터뷰 참여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연구의 방법으로 참여자 모두가 인문학적 방법론을 따라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음악작품을 함께 분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악작품 중 가곡 등 성악곡이나 오페라와 같이 가사나 대본이 있는 경우에는 음악분석과 텍스트 분석을 병행한다고 하였다. 그 외에 인류학이나 역사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연구자도 있었다.

“저는 음악사를 연구하고 있고, 18세기 프랑스 작곡가의 오페라를 연구하고 있어요. 18세기 계몽주의 철학, 데카르트도 같이 보고 있어요. ... 작품분석도 같이하고, 그 작품에서 어떻게 근대성이 드러나는지도 보고요, 작품분석이 주가 되고, 오페라다 보니까 가사 번역도 하고 있고요.” [C1, 여, 박사과정 수료]

“역사서술, 음악 편사학에 대해 보고 있고, 역사사관에 따라 어떻게 역사서술이 변화했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 역사서술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를 보고 있고요, 인문학과 인류학적 방법론, 해석학이나 고고학의 방법론도 사용하고 있어요.” [C2, 여, 박사과정 수료]

3) 정보 접근 과정

인터뷰 참여자들은 연구주제의 선정, 연구 동향의 파악, 선행연구의 수집과 분석, 글쓰기 등 연구 과정 중에서 연구하는 음악작품의 확인이나 분석을 위해 연주 녹음이나 영상을 확인하고

<표 3> 인터뷰 참여자들의 음악학 연구 분야

범주	코드	하위 코드
연구 분야	음악사	고음악, 중세 음악, 바로크 음악, 17세기, 18세기, 20세기 음악
	대중음악	대중문화, 미디어
	디지털 음악학	
	음악과 여성	젠더, 페미니즘, 여성의 음악 요소
	음악미학/철학	음악적 리얼리즘
	음악이론	음악분석
	음악편사학	역사서술
	세계음악(월드뮤직)	동아시아 음악, 중동음악
	소리연구	Soundstudies
	작곡가 연구	작곡가 생애, 작품, 경향 연구, 사회적 배경 연구
	장르/형식 연구	교향곡, 마드리갈, 오페라, 오페라 부파, 성악곡
	한국 근현대 음악	주변국 음악, 근현대 연구, 북한음악, 한국교회음악사, 한국대중음악사, 한국작곡가

감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선행연구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며, 최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자원을 많이 이용하였다.

“최근 문헌들, 최근 경향을 많이 쫓아가려고 하죠. ...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연구자 세대교체가 되면서 연구 경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새는 YouTube를 많이 보잖아요. 제가 연구하는 음악도 요새는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많이 해요. ... 연구와 연주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서 연구가 달라지면, 연주도 달라지는, 그래서 문헌연구도 하지만 연주도 같이 보고 있어요.” [A2, 여, 교수, 경력 13년]

연구자원에 접근하는 첫 과정은 주로 포털 사이트와 소속기관 도서관 사이트에서의 전방위적 검색을 함으로써 대략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악작품을 연구하는 도중 직접 음악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자료나 연주동영상을 찾기도 하는데, 주로 YouTube를 이용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에서는 구글에서 랜덤하게 많이 찾아보는 편이고, ... 주제가 정해지면 관련 분야 선행연구를 놓치면 안 되니까 일단 체계적인 검색엔진 들어가서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검색창을 이용해요. 거기서 상세검색을 하면 선행연구를 많이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B1, 여, 강사, 경력 4년]

4) 정보 이용 목적

연구자원을 이용하는 목적은 대부분이 논문

작성이나 과제 제출, 전임교수나 강사의 경우는 주로 강의를 위해 연구자원을 필요로 하였다. 연구자 대부분이 최근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연구주제를 선정과 프로젝트를 위한 자료의 수집, 한국 근대음악 1차 자료의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연구자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또한 정보 이용 목적에 따라 원하는 연구자원의 특성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인터뷰 참여자의 경우 연구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구글 검색과 함께 서점에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시작하고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정립되면 본격적으로 선행연구 검색을 수행한다고 응답하여 점차 특정 주제 분야에 한정된 연구자원을 필요로 하였다. 반면에 논문작성법 강의를 위해서는 전공 분야 이외의 넓은 범위에서 학생들에게 유용한 예시가 될 수 있는 연구자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에서는 체계화하기는 어렵지만, 구글에서 많이 찾아봐요. 서점에서도 찾아보고, 주제가 정해지면 선행연구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려고 검색을 하고요. 관련분야 선행연구를 놓치면 안되니까. ...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논문작성법 수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좋은 샘플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검색해야 해서 제 분야와 관계없는 것도 필요하고.” [B1, 여, 강사, 경력 4년]

3.2.2 정보이용

음악학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하며 정보요구가 발생했을 시 자주 활용하는 연구자원의 유

형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자원 검색방법을 조사하였다.

1) 연구자원 유형

인터뷰 참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연구자원의 유형은 학술지 및 학위논문과 단행본이고, 악보와 악보집, 음향 및 영상자료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근대음악 연구나 음악 사회사를 연구하는 경우에는 신문과 잡지를 많이 이용하고, 개념이나 용어의 확인을 위해 음악전문사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타 음반의 해설지나 음악회 포스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앞서 제시된 정보 접근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최근에는 많은 음악 연주들을 YouTube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게 되면서 다수의 인터뷰 참여자들이 YouTube를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학술지랑 학위논문, 단행본을 많이 보고요. 시기적으로 멀리 떨어진 근대 연구를 하는 경우는 자료를 발굴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신문, 잡지도 찾아보고.” [B3, 여, 강사, 경력 9년]

“단행본을 많이 봐요. 국내외 학술지 논문 보고, 용어나 개념 찾으려고 사전도 찾아봐요.” [C4, 여, 박사과정 4학기]

“아무래도 음악 연구이다 보니까 텍스트와 악보를 보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음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해서 YouTube에서 음악을 들어보고 하는 경우도 많고 ...” [B2, 여, 강사, 경력 3년]

주로 이용하는 연구자원에 대한 인터뷰 참여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이를 범주화하여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이 온라인 연구자원을 많이 이용하였고, 제공하는 자원의 유형에 따라 거의 비슷한 이용 패턴을 보였다. 특히 악보 DB나 음악 DB, 음악 및 동영상의 경우 음악학 연구자들에게 필수적인 연구자원이었는데 Naxos와 RILM 등 음악 DB의 경우 도서관에서의 구독이 필요한 자원이며 악보 DB인 IMSLP 역시 무료 공개되는 악보 이외에는 멤버십 구독이 필요한 자원이었다. 이와 같이 음악학 연구자들에게 특화된 연구자원 대부분이 구독 기반이므로 대학도서관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자원의 선택 기준

연구자원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표 5>에서 나타난 대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대다수 인터뷰 참여자들은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언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연구자원 선택의 기준으로 신뢰성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자신의 연구주제나 내용과의 관련성, 최신성도 중요한 기준으로 택하였다. 연구자원의 정확성을 강조하였던 인터뷰 참여자(A3)는 고악보의 예를 들면서 연도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연구자원을 선택한다고 응답하여 다양성 역시 선택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자원의 편이성 및 경제성이 복수의 인터뷰 참여자들에 의해 언급되었으며 독창성, 효율적인 브라우징 기능, 인용지수, 내용의 깊이도 선택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표 4〉 음악학 분야 연구자가 주로 이용하는 연구자원 유형

범주	코드(연구자원유형)	하위 코드(이용 연구자원)
이용 연구자원	도서관	소속기관 도서관, 미의회 도서관, British Library
	국내학술지/논문DB	DBpia, KISS(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RISS
	국외학술지/논문DB	JSTOR, Music Index, PQDT(ProQuest Dissertation Theses)
	온라인 목록	WorldCat
	악보DB	IMSLP(International Music Score Library Project)
	음악DB	Naxos, Oxford(Grove) Online, RILM, RISM(Répertoire International des Sources Musicales)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Google, Google Books, Google Scholar
	음악 및 동영상	Naxos, YouTube, Melon, 음반 해설지
	학회/학술지 사이트	Early Music, JAMS(Journal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IAM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usic Libraries), IMS(International Musicological Society), Music Theory Online
	학술대회 참가	심포지엄, 학회, 세미나
	SNS/RSS	페이스북, 트위터, RSS
	인적자원	스터디 그룹, 지인이 알려준 정보
	기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고서점, 네이버 신문, 아미존, 작곡가홈페이지, 중고음반 사이트

〈표 5〉 음악학 연구자의 연구자원 선택 기준

선택 기준	내용	응답 수
신뢰성	저자 권위, 출판사 권위, 소속 학교명	8
관련성	연구내용과 관계, 추천되는 논문, 같이 다운받은 논문	7
최신성	최근 연구	6
정확성	출처정보, 인용정보	5
편이성	바로 이용, 쉽게 이용	4
경제성	최소한의 시간, 비용	2
다양성	많은 정보, 다양한 시각	2
독창성	새로운 시각, 참신한 아이디어	1
브라우징 기능	한 눈에 살펴보기, 목차검색	1
인용지수	다운로드 횟수, 이용횟수	1
내용의 깊이		1

3) 정보검색 방법

음악학 연구자들이 주로 어떤 검색방법을 사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검색방법과 그에 대한 과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인터뷰 참여자들은 주로 키

워드 검색을 사용하였고, 검색창에서 키워드로 검색한 후 자료의 유형이나 년도 제한, 주제 분야 등 결과 내 검색을 하거나 다양한 키워드 조합을 통해 검색 결과를 좁혀가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키워드 검색에서 음악 자원의 검색을 위해 음악용어를 여러 가지로 변경해 가며 검색한다는 응답도 여러 건 있었다. 음악용어의 경우 이탈리아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등에서 유래한 용어가 많이 있는데, 단수와 복수에 따라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며, 작곡가 이름으로 검색하는 경우에도 원어와 영어식 표기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상세검색 항목 중 incipit(음악 첫머리) 검색이나 멜로디 검색이 있는 사이트의 경우는 제시된 건반 창에 음을 직접 입력하여 관련 음악을 검색하기도 하였다.

“사이트에서 제시되는 기능에 따라 다른데, 데이터베이스 안에 내용이 상세하게 구축이 되어있는 경우는 상세검색기능을 바로 쓰고, 기본적인 검색을 해야 하는 사이트는 거기에 맞춰서 해요. 음이름을 넣어서 검색할 수 있는 RISM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을 사용해서 검색해요.” [A3, 여, 교수, 경력 17년]

“효과적으로 검색하려면 검색엔진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고, ... 키워드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어 같은 경우는 복수나 단수를 구별해서 넣거나 할 때 걸러지는 검색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 [A5, 남, 교수, 경력 15년]

정보 검색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인 인터뷰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검색 및 활용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음악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인터뷰 참여자(C5)는 “대학원 특강으로 미국에서 사서 하셨던 분”에게 연구 자원의 검색 등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방법”을 배웠으며 매우 유용했다고 설명하였다. 박사과정을 수료한 참여자(C2)도 예전에는 도서관에서 “학기마다 음악대학이랑 연계”하여 교육을 제공하였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경험을 언급하였다. 이용자 교육은 대학도서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음악학 연구자들에게도 이러한 서비스가 유용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3 연구자원 이용의 문제점

음악학 연구자들이 연구자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로 부딪히는 문제로는 원문 접근의 제한과 1차 자료에 대한 소재확인 및 이용 불가, 저작권 문제와 전문가 부재가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소속기관에서 DB를 구독하지 않아 학술지 원문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저희 학교가 전에는 RILM을 구독을 했는데, 이용자가 적어서 지금은 구독을 안해요. 꼭 필요할 때 찾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용을 못해서 많이 아쉽죠.” [C3, 남, 박사과정 수료]

이와 더불어 대중음악, 세계음악 등 새롭게 등장하는 연구 영역에 대한 연구자원의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토로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대중음악을 연구하는 인터뷰 참여자(B1)의 경우 “대중음악 쪽 연구를 하다 보면 만나는 첫 번째 장애물이 악보를 구하는 일”이며 이렇게 접근이 어려운 자료들을 “도서관에서 체계적으로 접근” 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음악작품을 연구에 인용하는 경우나 악보를 다운로드하고 인쇄하는 경우 발생하는 저작권의 문제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도 어느 정도까지 이용해야만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연구자들이 있었다.

“인용할 때 저작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가 없더라고요. 대중음악작품의 경우 인용을 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B1, 여, 강사, 경력 4년]

서비스 담당자가 전문 사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음악 연구자원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분류나 검색어의 오류 문제도 음악 분야 전문가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밖에 음악 자원을 검색하는 데에 있어, 용어의 통일이나 관련 용어의 연결 등의 문제도 언급하였다.

3.2.4 연구자원의 가치 인식

1) 연구자원에 대한 이용자의 가치 인식

음악학 연구자들은 이용하는 연구자원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음악학 분야 연구자원에 대해 개인의 지식을 확장하고 연구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적 가치를 부여하고, 연구 활성화를 뒷받침하여 지식이 공유되고 후속 연구가 지속되도록 하는 사회·문화적 가치, 문화유산과 보물로 인식하는 역사적 가치를 갖는다고

인식하였다. 온라인 연구자원에 대해서는 이용의 편이성과 최신성 유지 및 시공간 제약을 넘어서게 해주는 가치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2) 연구자원의 가치 강화 및 활용 촉진

인터뷰 참여자들은 연구자원의 가치를 강화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구독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는 등 도서관 서비스의 지원, 정보검색과 연구자원 이용에 관한 이용자 교육 및 연구자원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문사서의 배치와 음악 자원의 이용에 있어 저작권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무엇보다 정보자원이 이용되어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국내의 열악한 음악 자원 수집과 발굴 문제가 해결되고 자원을 체계화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하여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음악 자원의 수집과 범위 확대와 더불어 정확한 분류와 기술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자료를 가지고는 있는데, 분류가 안 된 것들도 꽤 있고 ... 음악 박물관이나 아카이브 같은 기구가 만들어져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그런 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A4, 남, 교수, 경력 22년]

많은 인터뷰 참여자들이 강조한 요소는 바로 전문사서의 양성과 배치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자원 활용 시 저작권이나 인용 안내 등 도서관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서비스 역할에서

부터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에 이르기까지 인터뷰 참여자들이 언급한 전문사서의 필요성은 다양하였다.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인터뷰 참여자(C6)는 사서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인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음악학 전문사서의 수가 늘어나고 “정보에 대해서 서로 풍부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희망하였다. 교수로 재직 중인 인터뷰 참여자(A2) 역시 “굉장히 제한된 정보만 보고 있어서 누군가 큰 그림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바램을 언급하면서 전문사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내가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음악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 전문사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C2, 여, 박사과정 수료]

“음악분석 같은 경우에는 형식을 보거나 하려면 짧은 곡 같은 경우에는 악보 전체를 인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B1, 여, 강사, 경력 4년]

이와 같은 전문사서의 필요성과 더불어 전문사서와 도서관 및 다른 기관의 협력을 비롯하여 음악학 분야와 타 분야와의 협력을 강조한 의견도 있었다.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음악도서관을 중심으로 IAML을 통해 국제적인 협력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음악도서관들과의 연계 없이 대학의 연구소가 IAML의 공식지부로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음악전문도서관 및 전문사서 협력체 구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음악 자료는 고유의 자료이다 보니까 문헌정보학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중요한 자료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 문헌정보학과 음악학이 협력해서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A3, 여, 교수, 경력 17년]

4. 음악학 연구자원의 이용 활성화 방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음악학 연구자들의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원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로 인터뷰 참여자들이 강조한 연구자원 이용의 문제점과 연구자원의 가치 강화 및 활용 촉진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연구자원의 수집과 체계화

연구자원이 활용되어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수집과 발굴이 우선되어야 한다. 음악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자료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음악학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인 1980년대에 나타났고, 연구를 위한 1차 자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 음악 자원의 수집과 보존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채현경(2012), 김은

하(2016), 이미배(2017) 등 선행연구에서도 음악 연구자원의 아카이브 구축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인터뷰 참여자들도 국내 음악 자원과 이에 대한 지원의 부족 및 체계적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음악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원의 수집과 발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음악 연구자원의 수집은 수집기관의 명확한 목적과 수집 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강조되었다.

더불어 음악학 연구의 흐름과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집하는 음악 자원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접근도 용이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젠더 연구, 대중음악, 세계음악 연구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표 3>에서 제시된 인터뷰 참여자들의 연구 분야에서도 참여자들의 다양한 연구 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제시된 연구자원 이용의 문제점 중에서도 나타났듯이 예를 들어 대중음악 악보와 같이 새롭게 확장되고 있는 분야의 연구자원으로서의 접근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확장된 범위의 음악 연구자원 수집과 함께 수집된 연구자원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원의 수집과 체계화, 디지털화와 더불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음악 정보 자원의 제공은 연구자들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음악학 연구자들의 디지털 자원에 대한 요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러한 정보요구와 이용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2 이용자 교육과 홍보

인터뷰 분석 결과에서 음악학 연구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견으로 정보검색과 연구자원 활용을 위한 이용자 교육과 연구자원에 대한 홍보가 제시되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검색 교육이 매우 유용한 경험이었음을 언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이용자 교육이 제공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YouTube를 연구자원으로 사용하는 인터뷰 참여자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해외의 선행연구에서는 음악 주제를 검색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원을 피할 수 없으며, 도서관 자원이 포함하지 못하는 주제나 자원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Dougan 2010; Dougan 2016).

따라서 온라인 연구자원의 유형과 특징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이용에 따른 제약이나 문제해결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이용자 교육이 필요하다. 웹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적절한 콘텐츠를 선택하고 다루는 방법이나 효과적인 검색방법,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확인과 이용의 윤리적인 부분 등 다양한 내용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의 전공 및 연구 분야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자원 이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주제가이드 등을 활용하여 소장자원을 비롯한 다양하고 상세한 연구자원을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쇄물이나 가시적 형태의 홍보와 SNS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로 연구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국외 연구자원의 경우, 자원의 높은 가치와 내용과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고 국내 연구자들에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서비스 데스크나 도서관 공간을 이용한 전시나 도서관 웹사이트,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를 활용하는 방법, 소속기관의 음악 연구자원을 발굴 및 선정하여 전시하고 홍보하는 것도 이용자들의 관심과 이용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4.3 전문사서와의 협력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음악 분야 역시 주제전문사서가 필요한 분야로, 음악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보 서비스를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음악 주제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음악 자원 이용의 문제 해결 방안이나 연구자원의 가치를 강화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사서의 배치를 강조하였다.

강만희(2010)는 음악 자원 정보서비스가 빠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로 음악전문도서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을 꼽았다. 국내 음악학 전공이 설치된 11개 대학원 중에서도 분관 형태의 음악도서관이나 음악자료실이 운영되는 곳은 6개 기관에 불과하였다. 이 중 음악전문사서가 배치된 곳은 없었으며 대부분 계약직 근무자이거나 음악을 전공한 계약직 행정조교가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사서의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대학원은 음악전문사서를 위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대학원에서는 음악 사서 과정을 제공하기도 하고,

음악도서관협회(Music Library Association: MLA)에서 정기적인 워크숍을 제공하며, 일정 교육과 경력을 갖추면 음악전문사서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MLA는 음악도서관의 장서 개발, 악보자료 관리 등 음악전문도서관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출판하여 주제 전문사서들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MLA나 IAML 등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음악사서를 위한 강좌를 수강하거나, 음악대학과 연계하여 전문사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음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서를 배치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정보가 웹을 통해 연결되는 디지털 시대에는 자원을 소장하는 기관 간의 협력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여러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음악 자원과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유하고 연계를 통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각 대학 음악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비롯하여 문화예술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장한 자원과 기록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연구자원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도서관 및 전문사서 협력체 구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협력을 통해 음악 분야를 위한 효과적이고 전문화된 정보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음악학 분야와 연구자원의 특

성을 이해하고, 음악학 연구자들의 정보요구와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연구자원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 관련 연구를 정리하여 국내 음악학 분야 연구자의 정보요구와 이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음악 연구자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국내 5개 대학원의 음악학 분야 연구자 16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그들의 정보요구와 연구자원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학 분야 연구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음악학은 객관적, 과학적 성격의 학문으로 출발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을 받아들이며 그 연구 범위와 방법을 점차 확장해가고 있다. 최근의 연구 동향은 서양예술음악 중심에서 벗어나 비서구 음악과 대중음악 등 모든 음악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며 학제간 통합의 경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연구자원의 디지털화로 자원의 활용과 접근이 매우 용이해졌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음악학 연구자들의 정보요구와 이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학 연구자들은 1, 2차 자료에서부터 문헌과 악보, 음향 및 동영상 등 광범위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자원을 필요로 한다. 둘째, 이들은 연구자원의 접근에 있어 포털사이트와 소속기관 도서관 사이트를 통하여 전방위적인 검색을 수행한 후에 개별 연구자원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연구자원의 이용에 있어 국내외에서 주요 연구자원으로 평가되는 것과 국내 음악학 연구자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연구자원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 자원의 포함 여부와 소속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

독 여부, 이용과 접근 및 검색의 편이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악학 연구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음악학 분야 연구자원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음악 연구자원의 수집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자원의 수집과 발굴, 음악학 연구 동향을 반영한 자원의 범위 확대, 음악 자원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기술 작업 및 디지털화를 통해 연구자원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검색과 연구자원 이용 및 주제 분야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연구자원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연구자의 인식을 높이고 연구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음악 주제전문사서의 양성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사서와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음악학과 같은 세부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음악 주제 지식을 갖춘 전문사서의 양성이 요청된다. 또한, 전문사서와 전문도서관, 문화예술기관 등의 협력이 이루어져 연구자원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서비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 조사는 국내 음악학 분야 연구자 16명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Krippendorff(2004)의 내용 분석 6단계를 바탕으로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나 상호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를 바탕으로 하는 분석의 일관성과 엄격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내 음악 분야 연구자를 비롯한 음악을 전공하는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이용에 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음악학 연구자들의 정보요구를 실증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음악학 분야와 연구자원에 대한 이해 및 이용자 정보요구 분석은 음악학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음악학 외의 음악 교육 분야 및 연주 분야를 비롯하여 음악 자원을 제공하는 전문도서관이나 문화예술기관에서의 정보서비스제공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만희. 2010. 음악자료의 새로운 접근방법: 인터넷을 통한 자료 검색 및 수집. 『음악논단』, 24: 319-361.
- 김보경, 안종현. 2014. 클래식 음악 이용자의 정보탐색행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학술대회논문집』, 8: 123-126.
- 김성혜. 2009. 한국에서의 음악학 담론과 제도-학문의 정치성. 『서양음악학』, 12(3): 85-105.
- 김은하, 이경자. 2014. 음악원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 음악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음악과 문화』, 31: 157-178.
- 김은하. 2016.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Music Archives in Korea. 『이화음악논집』, 20(1): 109-139.
- 김은하. 2017. Digital Musicology as a Method. 『이화음악논집』, 21(3): 117-139.
- 김춘미. 1988. 음악문헌학 시론-음악학의 분과학으로서의 음악문헌학의 현실과 가능성. 『음악학』, 1: 53-74.
- 박미경. 2005. 한국의 음악박물관 현황과 육성과제. 『한국음악연구』, 37: 95-109.
- 송무경. 2016. 『음악 논문 작성법: 음악분석에서 글쓰기까지』. 파주: 음악세계.
- 안종현. 2015. 『클래식 연주곡 이용자의 정보탐색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미배. 2005. 제1회 RILM 학술대회 참관기. 『서양음악학』, 8: 377-380.
- 이윤주. 2005. 『이용자 중심의 음악정보검색시스템 설계를 위한 정보탐색행위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주성혜. 2004. 문화로서의 예술읽기, 음악학에서의 간학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 『낭만음악』, 17(1): 195-213.
- 채현경. 2012. 동아시아 근대 초기의 노래들: 왜 원전연구를 해야 하는가?. 『이화음악논집』, 16(1): 101-129.
- 최성호, 정정훈, 정상원. 2016. 질적 내용분석의 개념과 절차. 『질적탐구』, 2(1): 127-155.

- Dougan, Kirstin. 2010. "Music to Our Eyes: Google Books, Google Scholars, and the Open Content Alliance." *Portal: Libraries and the Academy*, 10(1): 75-93. <<https://doi.org/10.1353/pla.0.0088>>.
- Dougan, Kirstin. 2012.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f Music Students." *Reference Services Review*, 40(4): 558-573. <<https://doi.org/10.1108/00907321211277369>>.
- Dougan, Kristin. 2016. "Music, YouTube, and Academic Libraries." *Notes*, 72(3): 491-508. <<https://doi.org/10.1353/not.2016.0009>>.
- Duckles, V. et al. "Musicology." Grove Music Online. <<http://www.oxfordmusiconline.com/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46710>>.
- Kulik, Ella. 2010. "Digital Musical Libraries: The Patterns of Use of Digital Musical Scores." *Fontes Artis Musicae*, 57(1): 65-75.
- Lai, Katie and Kylie Chan. 2010. "Do You Know Your Music Users' Needs? A Library User Survey that Helps Enhance a User-Centered Music Collection."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6(1): 63-69. <<https://doi.org/10.1016/j.acalib.2009.11.007>>.
- Lee, M. 2017. "Entangled Modernities in the Culture of Korean Music Publishing: Challenges in Establishing a Contemporary Korean Art Music Archive." *Fontes Artis Musicae*, 64(3): 215-226.
- Liew, Chern L. and S. N. Ng. 2006. "Beyond the Notes: A Qualitative Study of the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Ethnomusicologist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2(1): 60-68. <<https://doi.org/10.1016/j.acalib.2005.10.003>>.
- Mayer, Jennifer. 2015. "Serving the Needs of Performing Arts Students: A Case Study." *Libraries & the Academy*, 15(3): 409-431. <<https://doi.org/10.1353/pla.2015.0036>>.
- Scott, Rachel Elizabeth. 2016. "Music Reference Sources: Analog in a Digital World." *Reference Librarian*, 57(4): 272-285. <<https://doi.org/10.1080/02763877.2016.1145615>>.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Jong-heon. 2015. *A Study on the Information Searching Behavior of Classic Repertoire Users*. M.A.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Chae, Hyun-Kyung. 2012. "Songs of East Asia at the Turn of the Century: Why Do We Need

- to Study Primary Sources?" *Journal of Ewha Music Research Institute*, 16(1): 101-128.
- Choi, Seongho, Jung-Hoon, Jung, and Sang-Won Jung. 2016. "Concept and Procedures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Journal of Qualitative Inquiry*, 2(1): 127-155.
- Joo, Sung-Hye. 2004. "Progress and Possibilities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Musicology." *Nangman Quarterly*, 17(1): 195-213.
- Kang, Mahn-Hee. 2010. "New Resources for Music Researches: Searching and Retrieving Information through Internet." *Journal of the Science and Practice of Music*, 24: 319-361.
- Kim, Bo-Kyeong and Jong-heon Ahn. 2014.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Classical Music User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8: 123-126.
- Kim, Chun-Mi. 1988. "A Study on Music Philology: The Reality and Possibility of Music Philology as a Branch of Musicology." *Musicology*, 1: 53-74.
- Kim, Eun-Ha and Kyeong-ja Lee. 2014. "New Possibility of Research on East Asian Music through Establishment of Music Database of Primary Sources." *Music and Culture*, 31: 157-178.
- Kim, Eun-Ha. 2016.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Music Archives in Korea." *Journal of Ewha Music Research Institute*, 20(1): 109-139.
- Kim, Eun-Ha. 2017. "Digital Musicology as a Method." *Journal of Ewha Music Research Institute*, 21(3): 117-139.
- Kim, Sung-Hye. 2009. "Discourse and Institutionalization: The Micropolitics of Korean Musical Scholarship." *Journal of the Musicological Society*, 12(3): 85-105.
- Lee, Mi-Bae. 2005. "Records of Attendance at RILM Conference." *Musicology*, 8: 377-380.
- Lee, Yoon-Joo. 2005. *A Study on Information Searching Behavior for Designing User-Centered Music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M.A.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Park, Mi-Kyung. 2005. "The Current Status of Music-Related Museums in Korea." *Studies in Korean Music*, 37: 95-109.
- Song, Moo-Kyoung. 2016. *How to Write a Music Essay*. Paju: Umaksegye.